

인사말씀

오늘 원로의장 스님과 원로스님을 모시고 500 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법석을 여니, 제불 보살님들이 외호하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정진의 덕화와 깊은 원력으로 기꺼이 동참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겠다는 공심으로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인 호국애민, 상생과 화합, 정화불사의 정신을 올곧게 세우는 일에 함께 나르고 있습니다. 34대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년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총무원과 조계사가 위치한 총본산은 불교가 기독교, 천도교 등과 함께 3.1 운동의 씨앗을 싹틔운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의 왜색화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의 염원과 식민지 지배라는 영과 욕이 이 땅에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대의 스님과 불자들은 불교의 청정가풍을 되살리기 위해 1938년 백미 2천섬과 8만냥의 정성을 모아 총본산 건립불사를 벌였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조계사의 가람을 정비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매일 같이 수많은 서울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선언합니다. 총본산 성역화는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을 던졌던 호국불교와 정화불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본산이 성역화 됨으로써 민족의 품을 떠나지 않았던 다양한 전통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시대의 조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됩니다. 관광 버스 주차 시설, 종합관광안내센터 등을 신설하여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광화문, 경복궁, 북촌,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 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10.27법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도 펼칩니다. 정화기념관을 건립하여 불교개혁과 정화불사의 의지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총무원을 비롯한 행정 기능은 단계별로 의논하여 봉은사로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불교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전법이 숨쉬는 공간으로, 시민의 삶을 생생하게 투영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수돗타 장자는 수많은 불제자가 전법할 수 있도록 기원정사를 극진한 신심으로 불공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고 오늘날 전 세계 사찰의 기원이 된 기원정사는 이렇게 지대한 원력과 발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수돗타 장자입니다. 여러분의 원력과 발심이라면 이 대작불사는 반드시 원만 회향할 것입니다. 큰 관심과 혼연한 동참을 바라며 불조 해명을 잇는 새로운 역사의 길에서 사부대중 모두의 청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